

#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서 학점 따 볼까

### 한전·전력거래소·콘텐츠진흥원·한전KDN 오픈 캠퍼스 운영 대학생 학점인정·취업 기회 제공... 지역 8개 대학 학생에 호응

# 조선대 4학년에게 재학 중인 장모씨는 지난 1-2월 나주 한국전력거래소 교육센터에서 진행된 '빛가람 학점 과정'에 참여했다.

장씨는 4주 동안 전력거래소와 유관기관인 한전KDN, 한전KPS, 한빛원전 등을 견학하며 이론·실습과 채용특강 과정을 이수했다.

그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현장 전문과정을 배우고, 취업하고 싶었던 기관의 현장견학을 통해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며 "대학 기준과 동일한 3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 유용했다"고 체험수기를 남겼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오픈 캠퍼스'가 올해 2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2019년 이점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픈캠퍼스'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에 맞춰 혁신도시 기관에 적합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 학점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어 대학생 사이에서 호응이 높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는 올해 '소프트웨어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신설하는 한전KDN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총 4곳이 오픈캠퍼스를 운영한다.

한전은 지난해에 이어 '에너지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 전남대·조선대·호남대 등 지역 8개 대학 150명은 매주 1회 한전과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공동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듣는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전력분야 기업 220곳이 회원인 단체다.

이번 과정에는 기업 임원진과 연구원·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전력기술 10개 분야 강의를 진행한다. 수강생들은 고장진단시험센터와 진도변환소 등 현장견학도 떠난다.

한국전력거래소 '빛가람학점과정'은 오픈캠퍼스 우수 사례로 꼽힌다. 지역 10개 대학 51명은 지난 2월 발전기 기초 교육(발전교육원), 송변전 기초 교육(한전인재개발원) 등을 받고 혁신도시 전력 관련 기관과 하동화력 등 전력 설비를 방문해 주요 업무를 익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동산대 취업준비생에게 직무체험형 인턴십 기회를 준다. 선발된 3-4학년 3명은 오는 9-12월 4개월 동안 8학점 짜리 '일·학습 병행 체험형 인턴과정'을 수행한다. 올해 처음 오픈캠퍼스를 운영하는 한전 KDN은 3주간 지역 대학생 20명을 소프트웨어 교육강사로 양성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한국전력거래소 등 오픈캠퍼스 기존 운영 기관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설 기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203.59 (0.00)	↓ 금리(국고채 3년) 1.70 (-0.01)
코스닥 754.74 (0.00)	↑ 환율(USD) 1168.20 (+9.70)

## 광주은행 1분기 당기순이익 453억 달성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사진)은 2019년도 1분기 당기순이익(공시기준) 453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선제적인 건전성관리로 고정이자여신비율 0.55%와 연체비율 0.56%로 은행권 최고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BIS자기자본비율은 16.64%, 보통주자본비율은 13.16%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0.44%p, 1.03%p 증가하여 자본적정성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안정적인 경영실적의 배경에는 저원가성 핵심예금과 우량고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내실 위주의 실적성장 추진,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도권 틈새 시장을 공략해 내실 있는 실적 성장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출과 서민금융지원에 도앞장하겠다"며 "고객중심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고객 한분께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 광주·전남 대표은행이자, 지역민에게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남화토건, 지식산업센터 신축 576억원 규모 공사 계약

코스닥 상장사인 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 '남화토건'이 지난해 매출액보다 많은 액수의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거래소는 남화토건이 나영산업개발(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kbi하남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지난 30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576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매출액(517억원)의 111.41%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분부는 남화토건이 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의 공사 계약을 수주, 동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날 장 종료 때까지 남화토건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BTS, 팰리세이드 타고 빌보드 어워즈 간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 2개 부문 수상 후보로 선정됨에 따라 시상식 참석 등 미국 현지 일정을 위해 플래그십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제공했다. 라스베이거스 숙소 앞에서 팰리세이드와 함께 서있는 방탄소년단. <현대차 제공>

## 공정위, 남해종합건설에 과징금 1억12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지역 건설업체인 남해종합건설에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하도급 업체들에게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해종합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6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법정 지급기일을 최대 528일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 113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은 지 15일 이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15.5%)를 줘야 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오늘부터 전국 4만여 편의점 제로페이 결제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ストップ, 이마트24 등 전국 4만3000여개 편의점에서 모바일 직불결제(이하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5월 중순 제휴 예정인 씨스페이스를 제외한 국내 주요 편의점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편의점이 0%대의 수수료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다.

중기부는 그동안 제로페이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결제절차도 개선했다. 지금까지

는 고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바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스마트폰에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생성한 뒤 보여주면 가맹점이 이를 스캐너로 인식해 결제하게 된다. 고객이 결제금액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고, 가맹점도 판매정보관리 시스템(POS)으로 매출 정보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결제 사업자와 협력해 편의점 별 할인 혜택,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달부터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 등 70여개 프랜차이즈

에서 제로페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일반 소상공인 점포도 가입과 POS 연계를 함께 추진한다.

또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7월부터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대 배달 앱에서 제로페이를 쓸 수 있도록 한다. 관공서 식당이나 공공주차장 등에서의 무인결제, 법적금 및 공공요금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NFC) 결제를 도입해 7월 중 택시를 시작으로, 버스과 철도 등 대중교통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상품권 발행·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7월부터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상품권을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해양에너지 '지속성장위원회' 발족식

기관·학계·언론 등 21명 구성 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는 지난 30일 사옥 대회의실에서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양에너지 지속성장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사건> 해양에너지지속성장위는 회사경영진과 기관, 학계, 재계, 언론,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지속성장위는 회사의 경영혁신·안전·고객서비스·신규사업 등 주요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제시된 의견을 회사의 주요정책과 경영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초대위원장에 박성수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부위원장에 박미경 전 환경공단 상임이사

와 송경용 동산대 교수, 사무총장에는 변원섭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 본부장을 선출했다.

김형순 대표는 "회사가 창립 37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고객들이 신뢰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 위촉된 여러 전문가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1982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광주·전남 8개 시·군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달 4일 '해양도시가스'에서 '해양에너지'로 사명을 바꾸고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C선포식을 오는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기술 | 남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의료진 | 최범채 김명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모든 순간 시민 여러분을 바라보고  
시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나주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나주시의회는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11만 나주시민과 함께 새 역사를 열어가겠습니다.

나주시의회